

고은 불교대학 소설



천인오쇠(天人五衰)

어찌 하늘이 그저 하늘일 따름이겠는가. 저 푸른 울음으로 가득한 하늘을 일러 '하늘의 아내'라고 감탄한 바도 없지 않거니와 하늘 속의 일 줄 모르는 대기(大氣)의 운행과 함께 거기에 생사의 온갖 기운도 운행함으로써 하늘의 일이 어느덧 땅의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늘 속의 찬란한 7보 궁전이 있을진대 저녁 낙조가 자아내는 하늘 속의 그 환한 빛깔들의 작별이아말로 어느 화공(畫工)과 어느 전속가가 입사리 이룩할 수 있겠는가.

하늘이 있어 땅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땅위에서 서로의 집단적 욕망이 충돌하여 싸움이 벌어질 때에도 그날이 하늘의 우연과도 같은 조화에 따라 비가 쏟아지는 날씨로 굳어지면 포슬(雨澤)을 지양하는 군대는 그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며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씨라면 파멸이 멸망시키는 명사수(名射手)로서의 궁병(弓兵)인들 곱박 못하고 두 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어찌 하늘의 그 시퍼런 허공이 땅의 일과 상관 없다하리, 어찌 하늘 속 구름 한 점이 지상의 인간에게 축생계에 아무런 상관도 없다하리. 어찌 아수라계의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었다가 무시무시한 집착의 어리 파도로 난리를 치는 일을 하늘의 기운과 동떨어졌다 하리.

그러므로 가장 영혼적인 신명(神明)을 지닌 원시시대의 사냥에게는 하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뇌파(腦波)를 가지고 한 마디 말 따위도 필요없이 서로의 의사

를 주고 받았던 터이다. 한 길을 더 나아가지만 고대인도의 지혜로운 하늘(天-提婆)조차도 인간계의 한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필연의 공간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계와 같은 중생의 한 족속이 머무는 미계(迷界)인 것이다. 다만 그런 미계 가운데서 가장 순수(殊

혼한 유정(有情)의 세계로서 천인(天人) 또는 천상인의 남녀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곳은 땅 위와 땅 속의 중생보다는 훨씬 북적(北詰)으로 넘치는 낙원으로 되고 있지만 그 신(神)들의 일도 끝내는 중생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하늘 속의 낙원에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승화(昇華)란 땅 위에서의 10선(十善)을 지은 선업(善業)에 의한 정확한 보상인 것이다. 그런 하늘의 세계는 좀더 자상하게 알아 보아야겠지만 여기서는 만화가 되기 시작한 하늘의 고통이 더 절박한 노릇이다. 이제 그는 땅 위의 어떤 고통이나 지옥의 8현(八現)에 의한 그 극한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하늘의 고통속에 잠겨있었다.

"있!"
"있!"
이같은 말막한 절규조차 나오지 못하였

어찌 이런 고통으로 끝나는 천상계의 즐거움과 행복이 거짓이 아니었던가. 만화는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도 그의 다리가 보따리는 이름의 특사(特使)로 어떤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즐거움을 아낄 줄 모르고 즐거움을 손길 줄 모르는 자는 또한 고통도 얻어지지 않고 다 받아야 하는 자 이니라."
아니, 그 소리는 만화로서는 한 자도 해독할 수 없는 하늘의 문자로 기록되어 하늘의 검은 빛깔 허공에 내걸려 있었다. 하늘은 한낱이라 하더라도 검은 빛깔이다. 다만 그 하늘의 궁전이 천상의 즐거움

회에 넘치는 오랜 표정이 고통에 의해서 여지없이 일그러지고 반 상태로 앙막한 얼굴에 고통만이 그려지고 있었다. 천상계의 수명이 다하는 마지막에 이르러 천인의 몸에는 다섯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첫번째는 하늘 속에서는 언제나 머리에 화관(花冠)처럼 피어난 꽃이 시드는 것이다. 그 꽃도 고통 때문에 더욱 빨리 사들여야 했다. 그것이 꽃의 고통이다. 두번째는 천인의 몸 거드람이에 진땀이



63

머리의 꽃이 시들고 거드람이에 진땀이나며 천의가 더러워지고 몸의 위광이 사라지며 지금까지 있던 자리가 싫어지는 것 이는 천상계의 수명이 다하는 징조로 천인오쇠라 한다

의 주위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고독뿐이었다. 이제까지 그렇게 다정한 천녀 아사도 다른 천인 천녀들도 어디로 가서 그가 남겨진 천상계가 한갓 짐초 투성(土城)으로 보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천녀들은 나를 항상 좋아하고 사랑해마지 않았건만 어찌하여 일시에 나를 갈조처럼 버리고 떠난 것인가. 나는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천상계 선경성(善境城)이 사라진 것인가... 네가지의 감로(甘露)도 맛볼 수 없고 청정한 다섯가지 음악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아 슬프고 슬프도다. 아 고통이 다시 나를 엄습한다. ...아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 제발 재석천(齎石天)이여,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제발 저 아랫해상의 마두산(馬頭山)이나 옥초해(玉 초海)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비통하기 짝이 없는 한탄과 비탄 가운데서 말하는 감로는 천상의 숨을 말한 다. 또한 마두산이나 옥초해는 두말할 것이 없이 천상계의 반대인 지옥계의 한 산과 바다를 말한다.
그 산과 그 바다의 고통이란 또 얼마나 처참한 것이겠는가. 이런 불안에 떨고 있던 만화가 갑자기 그가 지니고 있던 전생의 바닷사나이답게

이제까지의 천상 낙원의 즐거움이나 임종에 이르러서 괴할 수 없었던 5쇠(五衰)의 고통조차도 잊었다. 천상계 역시 윤회하는 괴로움의 바다에 휩쓸렸다는 사실을 천상계 마지막에야 새삼 깨달게 된 만화로서는 그곳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의 이면(裏面)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천상에 태어나는 일이어말로 조금도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런 업도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천상과 지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없이 어떻게 진리를 실현할 것인가. 선도 미혹이거늘 허물며 악일수록. 선과 악도 다 멈춘 그 자리에 가서 한 줄 재가 될 수 있어야 거기에 열반의 꽃 향내가 피어날 것이 아닌가.

이런 만화의 생각은 마치 그가 고통을 받고난 뒤의 어떤 무감각처럼 동동 떠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생각을 발전시켰다. 허공계의 그 공간은 순수한 진공(真空)으로서의 무(無)와 공(空)의 영역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른바 양이상학적인 허공이 그것이었다. 그 허공은 아주 크다. 크다는 말조차 맞지 않을만큼 크다. 그런 허공계의 일정한 부분은 대기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 성운권(成雲圈)이다. 그

"천상도 끝내는 고통의 세계" 선악 멈춘 자리에서 열반의 꽃 한송이...

으로 남칠 때에만 5색이 어우러지는 황홀경이 되는 것이다.

엄격한 이런 하늘의 검은 빛깔을 말하고 있거니와 그것이 땅위의 사람에게는 어느덧 땅위의 중생보다 더 높은 단계를 표상하는 푸른 빛깔의 순수한 원색으로 달라지는 것이었다. 더이상 절규도 심음도 낼 수 없는 만화에게는 그의 애인이었던 아사의 모습도 사라진 듯 오직 고통만이 계속되고 있었다.

"세상에 이런 아픔이 어디 있던 말인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천상계를 떠나야 한다면 누가 천상계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였는가. 하지만 인간계에서의 선업을 닦는 일 자체도 중생의 미혹이라는 골레를 벗어던지는 일이 아니므로 끝내 하늘의 궁전에 태어나는 일조차도 중생의 행방(行方)에 불과한 것이었다. 만화는 이제까지의 천상에서 이룬 그 한

난다. 세번째는 천의(天衣)에 때가 묻어 더러워지기 시작한다. 네번째는 몸의 위광(威光)을 잃음으로써 갑자기 불이 꺼진 것처럼 되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이제까지 있던 자리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

이런 다섯가지의 죽음을 나타내는 징조를 일러서 천인오쇠(天人五衰)라 한다. 바로 만화가 이같은 다섯가지 징조를 내보이며 그 고통이 극도에 이르렀던 것이다. 만화는 그의 고통조차 점점 힘을 잃어가 는 과정에서 즐거움도 고통도 다 떠나버린 생명의 캐러가 되어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남겨진 신세가 되었다.

"아!"
라고 힘없는 탄식이 나오다가 말았다. 그는 그의 머리를 만져보았다. 거드람이에 젖은 땀방울이 역겨웠다. 하늘을 날 때의 그 우아한 비상(飛翔)의 날개였던 웃도 열룩지기 시작하였다. 아니, 만화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우락부락한 표정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돌연의 일이었다.

만화가 하늘 속의 허공에 우뚝 섰다. "왜 내가 이 모양으로 남부한가!"
"왜 내가 이 모양으로 비참한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고 아수라 바다 한복판에 떨어지면 어떻다는 것인가!"
"왜 내가!"
"왜!"
"왜!"

그는 그 자신의 몸을 두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다. 고통이 다시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이상 그 고통때문에 고통 이상으로 괴장되지 않고 돌아 구리의 원광(圓光)이 그러는 것처럼 무감각상태로 그 고통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내 천인으로서의 만화는 한 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은채 천인의 최고에 이르러 눈을 딱 감아 버렸다.

곳의 허공에는 엄청난 먼지와 티끌,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의 분자(分子)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분자 속의 중성자(中性子)의 행위에 따라 다른 현상으로 발전하는 업-카르미-의 세계가 시동(起動)되는 것이다. 어쩌거나 만화는 그런 먼지와 티끌이아말로 세계를 떠도는 영혼의 미립자(微粒)라 생각하였다.

"천상에는 이런 영혼의 가장 작은 씨앗들이 없는 즐거움의 사막인지도 몰라. 아니 천상도 끝내는 고통의 세계일 뿐이지"라는 만화의 독백이아말로 그가 살았던 천상계를 떠나는 임종의 유언이기도 하였다.

그는 인간계의 지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림·조향수

아바타 코스: 깨달음의 향연
-아바타 시리즈 제1편-

一切唯心造

(뜻대로 사는 길)

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

부처님께서 역대 스님들에게 거짓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테고 그런 경지를 실지로 확인하고 체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국내외에서 구도자들은 물론 정신세계심리학, 철학, 4차원 세계에 관심 을 가진 분들에게 선물을 일으키고 있는 막대한 것이 아닌 확실한 원천 이 여기 있습니다. 아바타 코스는 어떤 신념이나 이념도 요구하지 않 고요, 더구나 의을 갖는 해나도 없다. 마스터와 참가자 사이에 대화도 거의 필요없다. 이 코스는 제시된 방법을 즐기는 가운데 근원을 체득 하여, 자신이 이미 무한 가능성 지녔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행을 떠 나듯이 출가본한 기분으로 8박 9일(10일) 정도이면 여행하는 기분 으로 모두를 잊어버리고서 잘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그리고 철 너의 하나 되어 일체 융성자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전해 보실 시오. 이렇게 쉬운 필연도 있었구나 하고 탄복을 하실 것입니다.

아바타 코스 문의
☎ (0631) 78-5161
☎ 012-634-5161

필수 학습을 위한 2차 2주 과정 2주 2회 4회
인간 마음의 신비

불교인들의 민생,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새해를 맞이하여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히 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사진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 無生心)

농협온리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중국 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기 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 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연수후: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수여
(침구 기공)

■인 원: 15명 이내

■출발일: 1996년 3월 21일(목요일)

■남경중의약대학: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02) 511-2026 · 2027
(02) 511-2028 · 1080
FAX: (02) 511-1080

현대불교

구독신청문의
광고신청문의

7	7	7
3	3	3
7	7	7
1	1	1
0	0	0
6	6	6
9	9	9
7	2	3